

環境과 開發을 위한 世界委員會 報告書概觀

- 하나의 지구에서 하나의 세계로 - ②

지난 6월 8일~6월 19일까지 멀리 아프리카의 케냐國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제 14차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The 14th Session of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55개국 집행이사국 대표와 옵서버국, 유엔직속기구등 총 101개국 (61개기구)에서 참석, 환경보전에 크나큰 관심과 대책을 강구했던 이번 회의는 '85년 「제 13차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暫定議題를 수정없이 채택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단도 구성했는데 議長에는 Mr. J. Illueca (파나마), 副議長은 Mr. Z. R. Ansari (인도), Mr. C. J. Butale (보츠와나), Ms. D. Protsenko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氏 등이었으며 書記에는 Mr. P. Sutter (스위스)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환경청 이두호 次長을 수석대표로, 최종무 참사관 (駐케냐대사관), 정국현 서울환경지청 계획과장, 추경호 (환경청 홍보협력과)氏 등이 참석했다.

本내용은 同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환경청 이두호 차장의 보고서로 重要부분을 연재한다.

< 편집자 註 >

26

우리의 현재의 낭비벽은 후손의 선택여지를 신속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산성우, 기온상승, 오존층 파괴, 광범위한 사막화와 種의 멸종 등 부담스러운 결과가 이 지구상에 나타날 때는 우리 세대의 의사결정자의 대부분은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닐 것이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때도 살아있을 것이다. 본 위원회의 공청회에 있어서 현재의 지구관리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바로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게 될 젊은 세대들이었다.

○지속적인 개발○

27

인류는 지속적인 개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서

도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限界—절대적 한계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수준과 환경자원에 대한사회조직 및 인간활동의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限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조직은 새로운 경제성장시대를 열기 위해서 관리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빈곤의만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빈곤은 그 자체로서는 최악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그들의 소망을 달성시킬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빈곤이 팽배한 세계에서는 생태적 또는 여타의 재난이 만연할 것이다.

채택된 주요議題

의제 4 사무총장 보고서

의제 5 환경상태 보고

의제 6 조정문제

1) UNEP와 유엔 인간 定住센터와의 협력

2) 행정조정 위원회

의제 8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전망

의제 9 사막화방지 실천계획

의제 10 프로그램 문제

의제 11 환경기금

의제 12 기타 행정 및 재정문제

의제 13 次期회의 시기·장소 및 의제

28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시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빈곤한 자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긍정성은 의사결정에서의 효과적인 공공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와 국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방식에 의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29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에너지사용 등에 있어서 지구상의 생태계 자원범위내에서의 생활패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구로 인하여 자원에서 압박을 증가시켜서 생활수준향상을 둔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규모와 성장율이 생태계의 생산잠재력 변화와 조화를 이룰수만 있다면 지속적인 개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30

그러나 終局的으로 지속적인 개발은 고정된 조화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필요에도 일치되는 자원이용, 투자방향, 기술개발방향, 조직개편 등의 변화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이 쉽거나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려운 결정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결국 지속적인 개발은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제도적인 껍 ○

31

지속적인 개발의 목표와 세계적인 환경과 개발문제의 종합적 성격은 각국에서나 국제적으로 편견과 단편주의에 의거 형성된 제도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각국 및 국제적인 지구의 변화속도 및 규모에 대하여 각국정부는 그들 자산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이러한 도전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 접근방법과 공공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32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기관들은 폐쇄된 의사결정 과정으로 비교적 偏狹한 임무만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영역과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자연자원관리와 환경의 보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과는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경제와 생태계가 상호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현실 세계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와 관련한 정책과 조직이 변화되어야 한다.

33

경제와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고 그들 기구에 대한 지원 또한 약화되고 있다.

34

환경과 개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또 다른 중대한 제도상의 결점은 각국정부가 환경과피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과피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 관한 관심은 2차 세계대전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각종 피해로부터 야기되었다. 시민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정부들은 그러한 피해를 해결시켜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환경 관계부처나 기관을 설립하였다. 많은 나라들은 비록 그들의 업무한계내에서지만 대기와 물의 질을 높이고 자원을 향상시키는데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은 事後的 피해복구—再造林, 사막지역의 복구, 도시환경재정비, 자연서식지의 복구등—가 주종을 이루었다.

35

그러한 행정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많은 정부와 국민들은 그러한 기관이 환경을 보전하고 環境質을 높여 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하수고갈, 유해폐기물과 독성화학물질의 만연등의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최근에는 농업, 산업, 에너지, 임업, 교

통정책과 집행등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토양침식, 사막화, 산성화, 합성화학물질, 신종폐기물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36

중앙경제부처들의 입장은 偏狹하고 너무나 성장이나 생산의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다.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산업목표에만 전념하고 그에 따르는 환경오염문제는 환경행정기관에 떠맡고 있다. 전력공급기관은 전력생산에만 집착하고, 그에 따르는 산성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화하는 기관에 미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경제정책관련기관들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게되는 인간환경의 質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환경행정기관들에게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37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들은 개발지원 및 무역관계 규정, 산업발전등과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에서도 필요하다. 몇몇 기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들의 업무수행에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는데 너무 느리게 행동하였던 것이다.

38

환경상의 피해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상에 경제, 교역, 에너지, 농업등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생태계적 차원을 고려·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같은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동일한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39

이러한 방향수정이 1990년과 그 이후의 주요한 제도상의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발 및 개혁이 필요하다. 빈곤하거나 소규모국가이거나 관리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훈련 등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크건 작건, 부유하건 빈곤하건, 모든 나라에 요구되는 것이다.

II. 정책방향

40

본 위원회는 인구, 식량확보, 種 및 유전자원의 손실, 에너지·산업·人間定住 등 각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 분리되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분야들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인구와 인적자원○

41

세계 각국에서 인구는 可用環境資源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비율로, 그리고 주거, 의료, 식량확보, 에너지공급의 향상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42

문제는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그러한 인구가 可用資源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口問題”는 자원에의 공평한 접근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대중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러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인류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43

급속한 인구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 세기에 60億 규모의 안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족의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과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自己決定權利를 보장해야 한다.

44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한 정부들이 광범위한 인구정책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구정책과 광범위한 인구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가족계획을 위한 사회, 문화, 경제적 요인을 강화시키고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피임약 및 기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45

인적자원개발은 기술지식과 力量增強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

회적, 환경적, 개발상 현상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共有된 지식은 지구의 자원을 공평히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意志創出과 상호이해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46

土着民族들은 경제개발이 그들 고유의 생활방식을 崩壞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은 현대사회에 산림, 산, 건조지생태계의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종족들은 그들이 감당해 낼 수 없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멸종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전통적인 權利들이 인식되어야 하며, 自己들 영역의 자원개발에 대한 정책형성시 결정적인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

○식량확보, 잠재력의 유지○

47

세계 곡물생산량 증가는 꾸준히 세계인구증가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매년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세계농업은 모든 인류에게 충분한 식량을 경작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필요한 곳에서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48

선진공업국에서의 생산은 대개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보조금지원을 받고 있어 국제경쟁에 있어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토양과 화학물질을 남용하고, 이러한 화학물질이 식량과 수질원을 오염시켜서 국토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와 관련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잉여물의 어떤 것은 개발도상국에 싼값으로 讓與되어, 수혜국의 농업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몇 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보전을 증진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49

그러나 많은 開發途上國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農夫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국가에서는 價格誘因과 서어비스와 결부된 기술이 食糧生産에 있어서 革新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타 국가에서는 食糧을 耕作하는 소규모농민들이 소외되어 왔다. 부적정한 기술의 사용과 경제적 誘因도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너무 건조하거나 가파르고 영양분이 없는 簿土에까지 農作을 확장하고 있다. 산림은 伐木되고 있으며, 생산력이 있는 乾燥地域은 荒廢化되고 있다.

50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특히 穀物의 경우 생산을 鼓舞시키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誘因策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交易條件”은 소규모 농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반면에, 대다수의 先進工業國은 剩餘生産과 실제로 比較優位를 지닐 수 있는 국가와의 불공평한 경쟁을 줄이고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耕作方法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변경시켜야 한다.

51

饑餓는 보통 사용식량의 부족에서보다는 實質購買力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식량확보를 위해 분배의 문제에 유념해야 한다. 토지개혁이나 2000년까지 2억 2천세대에 이르게 될 무력한 自營農, 遊牧人, 小作人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농업부문 內·外에서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키는 綜合地域開發에 의해 더욱 번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종과 생태계 : 개발을 위한 자원 ○

52

이 지구상의 生物種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 種의 滅種率과 이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그 유래가 없을 정도의 비율로 많은 種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점차 과학적인 이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과정을 중지시킬 시간이 남아 있다.

53

種의 多樣性은 생물권과 생물계 전체의 정상

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野生種의 遺傳因子들은 개량된 穀物種子, 새로운 약품, 의료품, 생산의 천연자원의 형태로써 세계경제에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便益問題와는 별개로 야생종의 보호는 도덕적, 논리적, 문화적, 심미적, 그리고 단순한 과학적 이유등도 있다.

54

사라져가는 種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생태계 문제들이 주요한 경제 및 자원 이슈로서 정치적인 과제로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55

각국 정부는 熱帶林과 기타 生物種 多樣性의 저장지를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동안 그들의 파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산림의 收益體制와 讓與條件을 개편할 경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산림자원이용을 촉진할 수 있고 산림 황폐화도 막을 수 있다.

56

전세계가 미래에 필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어느 정도의 보호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적인 측면에서나 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機會費用側面에서 보거나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開發機會는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제개발기관은 種의 보전과 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57

각국 정부는 “宇宙資源” 원칙을 반영하는 여타 국제협약과 그 정신과 범위에 있어서 유사한 “種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협약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재정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

○ 에너지 :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선택 ○

58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의 관리는 지속적인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의 증가율은 감소

되어 왔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의 산업화, 농업 개발, 그리고 급속히 증가되는 인구 때문에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시장경제체제에 살고 있는 평균인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사하라以南 아프리카 사람이 사용하는 양의 80 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假想計劃도 開發途上國의 현저히 증가된 기본적 에너지 사용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59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사용량을 선진공업국의 사용량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5배가 필요할 것이다. 지구생태계는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 특히 이러한 증가가 재생시킬 수 없는 化石燃料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기온상승의 위험성과 환경의 산성화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과 같은 현재의 자원공급에 기초한 에너지 사용을 2배로 증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60

어떠한 새로운 경제성장시대에도 과거에서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경향은 완화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정책이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주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오늘날의 전기제품들은 과거의 제품을 작동시키는데 소요되는 에너지의 3분의 2, 혹은 2분의 1 정도밖에는 소모되지 않도록 새로 설계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접근방법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훨씬 크다.

61

약 40여년에 걸친 엄청난 기술적 노력으로 핵에너지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동안 핵에너지의 비용, 위험과 편익에 대한 성격이 명확해졌고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각국은 핵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 있어서의 論議 또는 그러한 다른 견해들과 입장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핵에너지생산은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만 正當化될 수 있다

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핵에너지의 안전성 증대 수단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代案들의 연구와 개발에 최우선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62

에너지 효율화는 세계가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低에너지 사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재생가능에너지는 21세기의 地球에너지體系의 기초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자원은 현재에는 문제점이 있어도 기술만 개발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차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된 개발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급속한 개발을 위한 財源을 얻어낼 수 있는 示範事業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에너지 사용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63

수백만의 開發途上國의 국민들은 전체인류의 절반의 주된 가정에너지인 연료용 목재의 부족을 겪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나무가 부족한 나라들은 많은 양의 나무와 기타 草木燃料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구조를 조직화해야만 할 것이다.

64

현재와 같은 에너지 사용구조에서 필요한 변화는 정부가 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주요 소비자로서의 막강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매년 에너지이용 효율화의 이득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정부는 소비자들에 대한 에너지 가격정책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에너지 節約手段의 채택을 위해 필요한 가격구조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비록 본 위원회가 특정수단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지는 않았어도 정부의 보존가격 책정시 여러가지의 수단들에 대한 비용의 장기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 정책에서의 油價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5

안전하고 環境上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에너지사용은 먼 미래의 인류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그것은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의지와 제도적협력이 필요하다.

○산업 : 적은양으로 더욱 많은 생산을○

66

세계는 1950년에 비해서 약 7배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人口增加率下에서 다음 세기에 인구증가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개발도상국의 소비수준을 선진공업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5~10배의 생산량증가가 필요하다.

67

선진공업국의 경험에 의하면, 오염방지 기술이 건강, 재산, 環境上의 피해를 고려해 볼 때 훨씬 비용효과적이며 자원이용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산업체에게 더욱 이익을 주었다. 경제성장이 지속된 반면, 天然資源의 소비는 일정하거나 줄었으며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68

각 국가들은 不適切한 산업화의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그들이 자원도 없고 급속한 기술변화의 시대하에서 지금 파괴된 환경을 나중에 정화시킬 시간도 없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공업국들로부터 지원과 정보를 받아야 한다.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과정을 순조롭게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多國의 기업들은 그들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의 산업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69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 환경오염의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새로운 유독성 화학물질과 폐기물, 그리고 유래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와 형태의 사고발생 위험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유해한 산업 및 농

업화학물질의 수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며 有害廢棄物 投機에 대한 현재의 규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0

수많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는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財貨와 用役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고 지속적인 開發에로의 전환은 산업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부의 흐름에 의해서 촉진되어야만 한다.

○도시화 문제○

71

2000년경까지는 인류의 절반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며 21세기에는 전세계가 거의 도시화될 것이다. 1920년에 10억이던 도시의 인구가 단 65년이 지난 지금 10배가 넘는 100억으로 늘어났다. 1940년에 100명중 1명은 인구가 100만이상인 도시에 살고 있었으나 1980년에는 10명중 1명이 같은 규모의 도시에 살았다. 1985년과 2000년 사이에 제3세계의 도시인구는 7억 5천만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몇년 사이에 開發途上國들이 간혹 극히 미비하다고도 하는 현재의 생활여건을 단순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시설, 거주지, 서어비스의 생산 및 관리능력을 65%나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2

開發途上國의 도시정부들은 급속히 증가되는 인구에게 대부분이 깨끗한 물, 위생, 교육시설, 교통 등 적정한 인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서어비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자원, 숙련된 인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열악한 시설속의 不法居住地가急增하고 불결한 환경과 관련된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다. 또한 선진공업국의 많은 도시들도 같은 문제 즉, 악화되어가는 기초시설, 환경파괴, 도시황폐화 및 이웃관계의 붕괴 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선진공업국에서의 이슈는 궁극적으로 정치,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다. 그들은 도시의 위기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